

\*주님 안에서 문안 올립니다.

개인적으로 짧지 않은 시간을 아프리카 땅의 구석에서 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보니 지금의 다짐 하나는, 바울사도 등이 힘써 전한 그분의 복음을 이어서 전하는 것 외에는 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. 이곳 남아공 러스텐버그 권역에서 세츠와나를 사용하는 흑인들에게 여러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전한 복음입니다.

\*복음\*

로마서 1:2-4

“**이 복음은**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**그의 아들에**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**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** 나셨고 **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**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**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**“

디모데후서 2:8

“내가 전한 **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** 기억하라“

잘 아시다시피,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20년쯤(이곳 흑인들이 기억하기 쉽도록)이 지난 후 로마서를 기록하며 첫 마디에 복음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.

이 복음은 그의 아들이시다. 그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죽으신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. 로마서를 쓰고 난 후, 10년쯤이 지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자신보다 30살쯤 어린 디모데에게 평생 알린 그 복음을 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되 로마서 1장의 그 복음의 내용을 더 간략하게 하시는..

\*한국선교사들의 복음을 따라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.

\*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님들,

저희는 6월 12일 젊은 흑인 형제, 제임스와 함께 한국에 갔다가 7월 25일 이곳으로 다시 오려고 합니다. 강원도 문막에 둔 월간 한국인 선교사의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작은 쉼터, (저희들 끼리의 표현으로는 메인쉼터와 씨브쉴터) 그 중 씨브쉴터 구입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수리 등으로 섬기고 병원에서 건강 점검도 함께 하겠습니다.

주님 안에서 조성수, 권희숙 올립니다.